

# 야마니石油相의 訪韓이 남긴 것

**원** 유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부 산유국들은 유가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減産을 단행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나, 떨어지는 기름값은 멈출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油價戰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OPEC (石油輸出國機構)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石油相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의 宗主國이다. 1조 7천억배럴로 추정되는 세계 제 1의 석유매장량을 배경으로 지난 73년과 79년 제 1, 2차 석유위기시 OPEC의 강력한 가격카드를 주도해온 장본인이다. 그 사우디의 석유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石油相을 24년간이나 지키고 있는 야마니-

그만한 거물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 OPEC의 위력이 막강할 때 그는 세계적인 거물이었다. 세계의 석유가격은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 석유의 확보 자재에 우리 경제의 생활이 걸려 있을 때, 사우디와 야마니는 우리에게도 대단한 존재였다.

그러한 야마니가 몸소 우리나라에 찾아온 것이다. 그것도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OPEC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자기네 기름을 좀 더 팔기 위한 사절로서 말이다. 지난 해 12

월 7일 OPEC 총회가 종래의 가격지정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시장점유율을 확보키로 결정한 이후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그의 돌연한 방문목적에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게 해준다.

단순히 세상만사 塞翁之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그의 방한을 다룬 국내매스컴의 지면할에도 눈에 띄게 빈약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그의 방한기간중 필리핀사태와 국내 정치사태가 연일 신문의 거의 全紙面을 장식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과거 그의 威光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보도였다.

우리가 사우디에서 들어오는 원유도입량은 이젠 많지 않다. 지난 80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도입원유의 61%가 사우디産이었으나, 그동안 수입선의 다변화가 이루어져 지난해엔 7%로 줄었다. 그만큼 원유도입에 관한한 사우디와는 멀어져 있는 것이다.

야마니石油相은 2박3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韓國정부수뇌와 정유업계 사장들과의 회담, 그리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네트백方式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가격정책이며, 앞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격결정방식이 나타나지 않는 한 네트백方式에 의한 거래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또 韓國에 대해서도 네트백方式에 의한 원유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야마니 石油相은 『그러나 油價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90년대에 가면 가격이 다시 상승, 수입국들이 원유수입의 상당량을 아랍산유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은근히 겁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너무 팔시를 말라는 뜻일게다. 그는 현재 국제원유가격이 투기에 좌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혼란은 분명 제 3차 석유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마니石油相이 투기적 시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최근 석유시장의 실태는 머니 게임과 商品去來의 合体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적 시장메커니즘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큰 흐름속에서 정부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상품가격은 코스트의 현실을 떠나서는 결정될 수 없다는 냉엄한 시장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는 石油에서도 예외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산유국이나 소비국은 석유시장의 정치나 인위적 操作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던 과거의 迷夢에서 깨어날 때가 된 것이다. 야마니石油相으로 대표되는 산유국지도자들도 이제 發想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金乾洽·대한석유협회홍보실장〉

